

친환경 지표 '긴꼬리투구'

'새우' 강진군에 대량 서식

잡초 제거 및 해충 발생 억제...‘친환경 청소부’ 역할 톡톡

강진군 강진읍 학령리 조동마을 친환경 새우재배단지 일대에서 긴꼬리투구새우의 대량 서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확인됐다.

3억 년 전 고생대 때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과 거의 같아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긴꼬리투구새우는 원래 1970년대 이전 물웅덩이나 능에서 서식했으나 지난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자취를 감췄지만 2005년 2월부터 발효된 애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애생동물 2급으로 지정됐다. 이후 개체 수의 증가로 2012년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생태자원으로

가치가 높다.

일명 ‘자연의 청소부’라 불리며 조류의 유기물, 모기유충, 식물성 플랑크톤 등을 잡아먹는 긴꼬리투구새우는 30개의 다리를 이용해 논 바닥에 구멍을 뚫어 먹이를 찾는 습성 때문에 잡초의 자생과 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벼의 뿌리 밭을 축진하는 효과가 있어 친환경 농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지표’로 여겨지는 긴꼬리투구새우가 친환경 재배 논이 아닌 일반 논에서도 자주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땅심이 살아나며 유기물이 공급되어 친환경 농작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건이 제대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강진군은 제초제 사용을 줄이고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새끼우렁이 농법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운영문 친환경농업 팀장은 “친환경농업의 지표인 긴꼬리투구새우의 지속적인 서식지 확대는 행정기관과 농가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농기를 또한 내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농토가 오염되지 않도록 친환경 농법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군, 수산자원 조성에 박차

일로읍 우비 선착장서 내수면 종자 매기 방류



무안군은 지난 24일 일로읍 우비 선착장에서 유관기관·단체, 지선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내수면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

방류한 내수면 수산종자는 폐기

108,000미로 부가가치가 높아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이다.

이번 방류행사는 불법어업, 자원남획, 어장 환경오염 등의 원인으로 감소하고 있는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많은 지역 어업인들이 동참하였다.

일로읍 청호여촌체육장 김송규 씨는 “이번 종자방류는 지역하천의 생태계 보전 및 개체군이 급감하고 있는 토종어종의 고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류사업을 실시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내수면 자원조성으로 지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 암태보건지소, 보건증 발급 시작

신안군은 내달 1일부터 암태보건지소에서도 보건증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생분야, 집단급식소, 노인장기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는 매년 1~2회 보건증을 발급 받도록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신안 중부

권 겸진 대상자들은 그동안 원거리에 있는 군 보건소나 목포권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서 겸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미발급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왔었다.

보건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는

암태보건지소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X선 활엽장비, 임상병리 검사장비 등을 갖추고 작년 7월부터 기능확대형 보건지소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장비의 활용을 다양화하고자 보건증 발급절차와 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하였고, 내달 1일부터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완도해양치유체험 프로그램’ 웰니스 관광급 부상

봄 프로그램 894명 참여…내달 19일부터 여름 프로그램 운영



체험을 시작으로 기울 프로그램까지 12회를 운영하였으며 44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29회를 운영했으며 참가자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주요 아웃도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해양체유 음식으로 선보인 꽈적, 뜨유부조밥, 김 주먹밥, 유자해초호떡을 시식하고 다시마를 넣은 해수온탕에서 해수찜으로 피로를 풀도록 하는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참가자들의 만족감과 치유 효과를 더했다.

한편 오는 7월 19일부터 한 달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여름 그리고 휴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도=김광수 기자

목포시,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40~50대 중장년층에 재취업 및 역량발휘 기회제공

목포시가 퇴직한 40~50대 중장년에게 재취업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은 40~50대 중장년 취업자와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하면 급여 외 별도로 1인당 기업에게 고용유지금 500만원, 중

장년 근로자에게 취업장려금 300만 원을 10개월로 나누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총 4명이며, 사업대상 기업은 목포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40~50대 중장년을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고, 지원금은 제외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 사업장이다.

목포시에서 먼저 사업대상 기업

을 선정한 후, 중장년 근로자는 선정 기업에서 자체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7월 5일까지 목포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이 중장년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군 청사 신축공사 기공식 가져



로 진행됐다.

터벌기 풍물놀이와 전남도립국립 대북공연에 이어 열린 기공식에서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시공사, 감리사의 성실시공 다짐선서와 함께 해남군 14개 읍면 길지에서 채취한 흙을 군민대표들이 직접 신청사 부지에 뿌는 합토식, 주요 내빈 시삽 등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오랜동안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청사 신축으로 해남의 자부심을 높이고, 해남군민과 희망 100년의 시대를 함께할 신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 신청사는 연면적 1만8601㎡로 해남읍성과 연계, 밝은 미래로 향하는 ‘해남루’를 중심으로 군 청사는 7층, 군 의회 청사는 5층으로 신축된다.

진도=조상용 기자

진도군, 2019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진도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2,519건 13억7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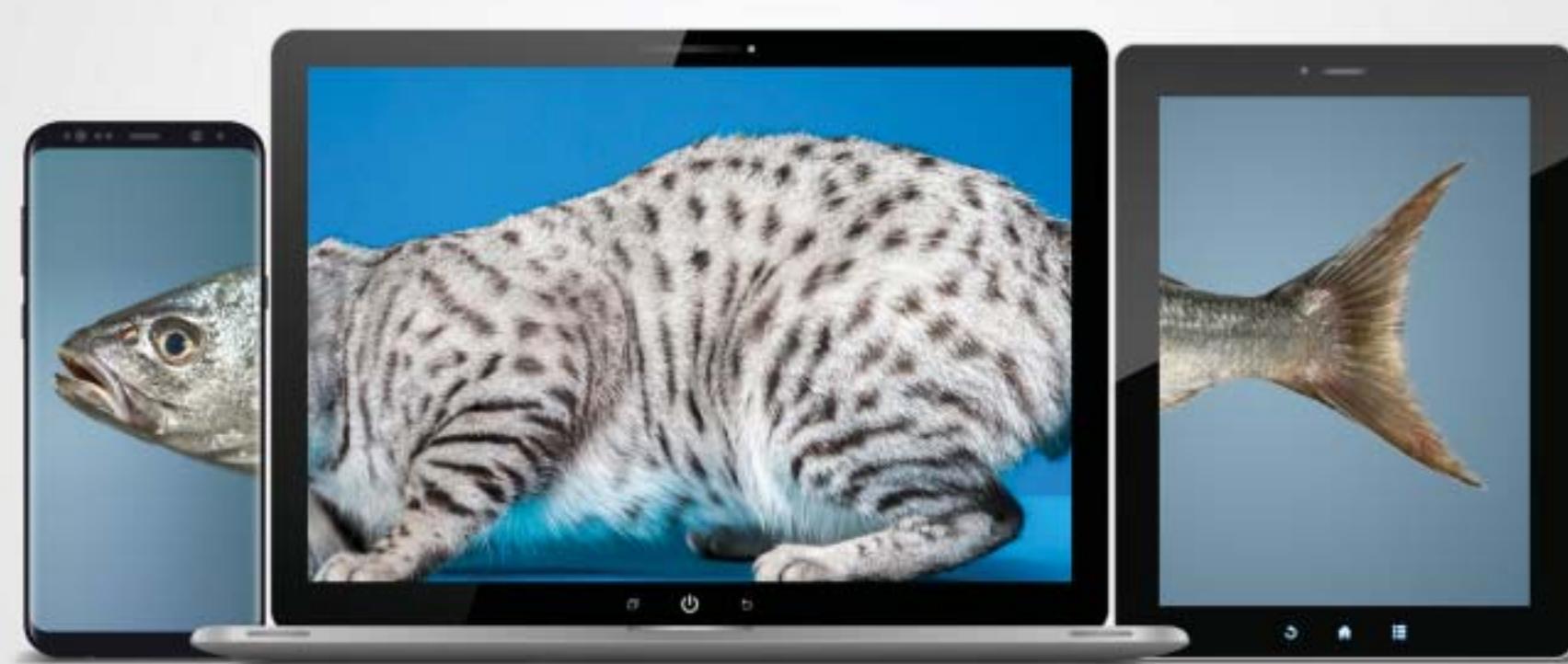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납기일 휴일 연장에 따라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과 현금 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중에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진도=조상용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